

## 李馨益 燔鍼의 계통과 성격

오준호<sup>1</sup>, 강연석<sup>2</sup>, 차용석<sup>1</sup>, 김남일<sup>1</sup>

<sup>1</sup>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sup>2</sup>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 The Lineage and Characteristic of Lee-HyungYik (李馨益)'s *Burnchim* (燔鍼)

Jun-Ho Oh<sup>1</sup>, Yeon-Seok Kang<sup>2</sup>, Wung-Seok Cha<sup>1</sup>, Nam-Il Kim<sup>1</sup>

<sup>1</sup>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In this study a correspondence between Lee-HyungYik (李馨益)'s *Burnchim* (燔鍼) and InJo (仁祖)'s illness was made and Lee-HyungYik (李馨益)'s *Burnchim* (燔鍼) was examined in detail.

The data researched was an article about Lee-HyungYik's *Burnchim* treatment that appeared in the Daily Records of the Royal Secretariat [『承政院日記』]. Based on this article, comparisons and contrasts with the contents of Shin-Eung Kyung (『神應經』)'s *ChimGuKyungHumBang* (『鍼灸經驗方』) were mad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Lee-HyungYik's *Burnchim* can be categorized as a kind of Burning Acupuncture Therapy [火鍼] and that his method succeeds that of Shin-Eung Kyung. It can be seen as a specialized version of the treatment methods for 'Kansa & Thirteen Acupoints' ('間使 and 十三穴').

This method was used to treat QueSa (鬼邪), which corresponds to the fact that InJo was agonizing over the imprecation incident in the palace at that time.

The specific method of *Burnchim* is similar to that of *HuaChimchinZyung* (火鍼七錐) mentioned in *ChimGuKyungHumBang*;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method introduced in *ChimGuKyungHumBang* is a description of Lee-HyungYik's *Burnchim*.

**Key Words** : Lee-HyungYik (李馨益), *Burnchim* (燔鍼), *ChimGuKyungHumBang* (『鍼灸經驗方』)

### 서론

李馨益은 仁祖대에 활동하던 鍼醫로서 燔鍼이라는 독특한 침법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는 충청도 大興 출신<sup>6)</sup>으로 인조 10년(1632) 천거되어 서울에 머물게 된다. 그는 인조 11년부터 인조가 사망하기 까지 왕의 두터운 신임 속에 활동하며, 인조가 죽은 뒤에도 孝宗, 顯宗에 이르기까지 침의의 역할을 수

행하게 된다.

그는 갑작스럽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여 많은 의문들을 남긴 채 사라졌다. 하지만 남아있는 사료들은 그에 대한 仁祖의 적극적인 신임과 그에 대한 신하들의 우려가 주류를 이룰 뿐,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왜 그토록 仁祖의 신임을 받았었는지 그가 사용한 燔鍼術이 의학적인 면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적다.

• 접수 : 2008년 9월 17일

• 수정 : 2009년 2월 10일

• 채택 : 2009년 2월 27일

• 교신저자 : 김남일(Nam-Il Kim)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학교실

Tel : +82-2-961-0672, Fax : +82-2-964-3191 E-mail : southkim@khu.ac.kr

이런 문제들에 대해 김훈<sup>1,2)</sup>, 김인숙<sup>3,4)</sup>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김훈은 仁祖의 질병을 한의학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李馨益의 치법이 일반적인 치법이 아니라 邪祟에 해당하는 치법이며, 燔鍼術은 불에 달군 침을 이용한 기법이라고 말하였다. 김인숙은 인조를 둘러싸고 일어난 저주사건과 건강상의 문제를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李馨益이 사용한 燔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지는 못하다.

이번 연구는 李馨益이 사용한 燔鍼術이 가지는 계통과 성격을 추적한 결과이다. 이 글에서는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李馨益이 치법이 원인불명의 上熱, 寒熱往來, 脹滿을 치료하기 위한 침법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그가 사용한 기법이 『鍼灸經驗方』 속에 “間使及十三穴” 형태로 전해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인조는 크게 4차례(인조 10년, 인조 17년, 인조 21년, 인조 23년) 병을 앓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이 형식의 초기 치법을 고찰할 목적으로 인조 11년(1633) 치료 기록을 중심으로 당시에 어떤 치료법이 행해졌는지 살펴보았다. 당시의 치료기록은 『承政院日記』의 기록을 사용했다.

## 본 론

### 1. 仁祖의 질병과 李馨益의 대응

仁祖의 건강상 주목할만한 문제는 인조 4년 자신의 생모인 啓運宮 具氏의 죽음에서 나타난다. 계운궁의 사망으로 애통한 마음과 소찬으로 몸이 수척해지고 얼굴이 검게 변하고 목소리까지 변하게 된다. 이후 인조 10년 仁祖의 나이 38세 때 인목대비의 사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소찬과 피로가 겹쳐 다시 질병이 발생하였다. 이때 나타난 질병은 인조 4년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인조는 이 때 얻은 건강상의 문제를 평생 안고 살아가게 된다.<sup>2)</sup>

본격적으로 질병을 얻은 것은 仁祖 10년 8월부터이며, 초기의 여러 치료가 큰 효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 때문에 그해 11월 李馨益이 천거되어 다음해 1월

부터 李馨益에게 치료를 받게 된다.<sup>4)</sup>

李馨益은 인조 10년 11월 6일 內醫院에서 천거되는데, 이때 仁祖는 ‘허망한 말(詭誕之說)’이라면서 이를 거부한다.<sup>9)</sup> 그러나 인조 11년 1월 17일에 內醫院이 재차 천거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지게 된다.<sup>6)</sup> 불과 2달 남짓한 시기 동안에 어떤 계기로 인하여 仁祖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 사이 궁궐 저주사건이 불거지게 되고 인조 또한 자신의 질병을 일상적이지 않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인목대비의 사례과정에서 최초로 생겨난 증상은 살이 마르고 한쪽이 마비되는 증상이었다. 그러나 이런 증상은 치료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sup>4)</sup> 정작 仁祖 자신이 저주사건을 의심하고 병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은 上氣, 脹滿, 寒熱往來의 증상이다.<sup>13)</sup> 이에 대해 仁祖 11년 10월 3일부터 李馨益의 집중적인 치료가 시작된다. 당시의 치법에 대해 『承政院日記』는 자세한 기록을 싣고 있다.

치료에 대한 기록은 인조 17년, 21년, 23년에 걸쳐 여러번 나타난다. 이때 주 증상도 인조 11년의 증상과 대동소이한 脹滿, 寒熱往來, 上氣症의 증상들이다.<sup>2)</sup> 이 치료기록에도 李馨益과 그의 燔鍼이 등장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기가 仁祖代 끝내 저주사건이 발생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사실이다.<sup>4)</sup>

### 2. 치료 기사에 묘사된 燔鍼術과 間使及十三穴

#### 1) 『承政院日記』에 묘사된 燔鍼法

인조 11년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이루어진 인조의 燔鍼 기록을 표1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Table 1을 보면, 대부분의 혈자리가 변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으며, 燔鍼을 행한 혈자리만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분석해 보면, 體幹의 俞穴은 쓰이지 않았으며 모두 頭面部, 上肢部, 下肢部의 수혈만이 사용되었다.

頭面部에서는 督脈의 人中, 上星, 風府와 任脈의 承漿, 그리고 耳前(耳門 혹은 聽宮 부위로 생각됨)이 사용되었다. 耳前을 제외하고는 모두 몸의 정 중앙에 위치한 수혈들이다.

**Table 1.** King In-Jo 11 Years October, Lee-HyungYik(李馨益)'s Burnchim(燔鍼) Treatment Record

	10월 3일	10월 5일	10월 6일*	10월 9일	10월 10일	10월 11일	10월 13일
頭面部	人中 承漿 上星(燔) 耳前 風府(燔)	人中 承漿 上星(燔) 耳前 風府(燔)	人中 承漿 上星 耳前(추정) 風府(추정)	人中 承漿 上星(燔) 耳前 風府(燔)	人中 承漿 上星(燔) 耳前 風府(燔)	人中 承漿 上星(燔) 耳前 風府(燔)	人中 承漿 上星(燔) 耳前 風府(燔)
上肢部	手大指端(燔) 曲池(燔) 間使(燔) 大淵 大陵 -	手大指端(燔) 曲池 間使(燔) 大淵 大陵 -	手大指端 曲池 間使 大淵 大陵 -	手大指端(燔) 曲池(燔) 間使(燔) 大淵 大陵 -	手大指端(燔) 曲池(燔) 間使 大淵(燔) - -	手大指端(燔) 曲池(燔) 間使(燔) 大淵(燔) - -	手大指端(燔) 曲池(燔) 間使(燔) 大淵(燔) - 勞宮
下肢部	足大指端(燔) 申脈(燔) 內庭	足大指端(燔) 申脈(燔) 內庭	足大指端(추정) 申脈 內庭	足大指端 申脈(燔) 內庭	足大指端(燔) 申脈(燔) 內庭	足大指端(燔) 申脈(燔) 內庭	足大指端(燔) - -
비고	번침 표시 없음						

※ 상기 수혈들은 左右 모두 취혈하였음  
 ※ ‘(燔)’은 燔鍼을 시술한 혈자리를 표시  
 ※ 나열 순서는 기사의 순서와 무관하게 비교의 편의를 위해 부위별로 재배열 하였음  
 ※ 기사에 훼손된 부분이 있는데, 훼손된 글자들을 유추하여 채워 넣고 ‘(추정)’이라고 하였음

上肢部의 경우 手太陰肺經의 手大指端(少商穴에 해당), 太淵, 手陽明大腸經의 曲池, 그리고 手厥陰心包經의 間使가 매 치료마다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大陵과 勞宮 역시 間使와 함께 手厥陰心包經에 해당되는 수혈들로서, 치료 시기에 따라 가감되었다.

下肢部 俞穴은 足太陰脾經의 足大指端(隱白에 해당), 足陽明胃經의 內庭, 그리고 足少陰腎經의 申脈이 공통적으로 사용되었다. 예외적으로 마지막 시술에서는 足大指端만 사용되었다.

이들 수혈들은 경우에 따라 선택적으로 燔鍼이 시술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上星, 風府, 手大指端, 足大指端는 모든 시술에서 燔鍼이 시술 되었으며, 曲池, 間使, 申脈은 한 번씩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치료에서 燔鍼이 시술되었다. 太淵의 경우 치료 과정 중반 이후에 사용되었다.

인조 11년 이후의 치료에서는 어떤 치료법들이 사용되었을까? 인조 11년 기사 뿐만 아니라 李馨益이 치료를 주도했던 인조 12년, 인조 17년, 인조 21년, 인조 26년 등 仁祖 평생의 치료기록 전반에 걸쳐 매우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인조 12년 『承政院日記』 기사에 나타난 치료기록  
 • 11월 18일

“受鍼穴, 間使二穴·人中一穴·手□二穴·足大指端二穴·大淵二穴·脈二穴·風府二穴·(缺)勞宮一穴·上星一穴·曲地二穴.”

• 11월 19일

“受鍼穴, 間使二穴, 人中一穴, 手大指二穴, 足大指二穴, 大淵二穴, 申脈二穴, 風府二穴, 耳前二穴, 承漿一穴, 勞宮二穴, 上星一穴, 曲地二穴.”

• 11월 20일

“受鍼穴, 間使二穴, 人中一穴, 手大指二穴, 大淵二穴, 申脈二穴, 風府一穴, 耳前二穴, 承漿一穴, 勞宮二穴, 上星一穴, 曲池二穴.”

○ 인조 17년 『承政院日記』 기사에 나타난 치료기록

• 8월 6일

“受平鍼間使及十三穴”

• 8월 12일

“受平鍼間使及十三穴”

• 8월 18일

“受燔鍼間使及十三穴”

- 8월 20일  
“受燔鍼間使及十三穴”
- 8월 22일  
“受燔鍼間使及八穴”
- 8월 24일  
“受燔鍼，間使及九穴”
- 8월 26일  
“受鍼間使及前穴”

○ 인조 21년 『承政院日記』 기사에 나타난 치료기록

- 2월 4일

“受鍼穴處，間使左右二穴·人中一穴·手大指端左右二穴·足大指端左右二穴·太淵左右二穴·申脈左右二穴·風府一穴·耳前左右二穴·承漿一穴·勞宮左右二穴·上星一穴·曲池左右二穴·舌下一穴。”

○ 인조 26년 『承政院日記』 기사에 나타난 치료기록

- 4월 25일

“受鍼穴，間使十三穴”

이상의 기사들을 살펴보면, 燔鍼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알 수 있다.

첫째, 燔鍼法에서는 공통적으로 일정하게 정해진 俞穴이 사용되었는데, 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間使及十三穴”이라고 표현되었다. 그 의미는 수침처로서 間使를 비롯한 13가지의 수혈을 가리킨다. 이 13가지의 수혈은 人中, 手大指端, 足大指端, 太淵, 申脈, 風府, 耳前左右, 承漿, 勞宮, 上星, 曲池, 舌下, 會陰이다. 여기에서 몇몇 수혈들이 생략된 경우에 間使及九穴, 間使及八穴의 형태로 표현되었다. 인조 11년 기사의 치료 수혈들을 같은 방법으로 표현해 보면 “間使及十一穴에 內庭을 가한 것” 정도가 될 것이다.

둘째, 지금까지 燔鍼術은 수기법만을 가리킨다고 인식되어 왔으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수기법과 함께 시술에 사용되는 정해진 俞穴이 존재했다. 즉, 임의의 수혈에 燔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間使及十三穴”이라는 특정 수혈에만 燔鍼을 사용하였다. 騎竹馬灸法이 騎竹에 환자를 태우는 방법만을 가리키

는 것이 아니라 시술에 사용되는 정해진 수혈까지 포함하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燔鍼의 개념은 수기법만을 가리키는 ‘협의의 燔鍼’과 수기법과 특정 수혈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燔鍼’으로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논자는 전자를 ‘燔鍼術’로, 후자를 ‘燔鍼法’이라고 구분하여 표현하도록 하겠다.

셋째, 燔鍼法에서는 間使及十三穴 안에서 燔鍼을 하는 수혈과 하지 않는 수혈을 조절함으로써 증상 변화에 대처하였다. 手法法 뿐만 아니라 選穴 또한 燔鍼法의 중요한 핵심사항 가운데 하나이다.

넷째, 燔鍼法은 일반 散鍼과 병행하여 사용되기도 하였다. 별도로 해결해야 할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치료혈을 첨가하였는데, 치료기록에서 間使及十三穴외에 사용된 內庭은 당시 仁祖의 脹滿 증상을 해소하기 위해 첨가된 혈자리이다.<sup>12)</sup>

## 2) 間使及十三穴 고찰

間使를 제외한 13穴은 일명 十三鬼穴로서 孫眞人 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며 『千金要方』에 ‘十三穴’로 처음 등장한다. 이후 『鍼灸聚英』, 『鍼灸大成』에 ‘孫眞人鍼十三鬼穴歌’로 실리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 혈자리는 鬼宮(人中), 鬼神(少商), 鬼壘(隱白), 鬼心(大陵), 鬼路(申脈), 鬼枕(風府), 鬼床(頰車), 鬼市(承漿), 鬼窟(勞宮), 鬼當(上星), 鬼藏(男即會陰, 女即玉門頭), 鬼腿(曲池)이다.

間使及十三穴을 함께 언급한 기록은 『神應經』(1643 조선 간행본)과 『鍼灸經驗方』(1644)에서 찾아볼 수 있다. 『神應經』은 明 陳會가 저술한 침구전문서로 성종 5년(1474)에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인조 21년(1643)에는 훈련도감자판으로 다시 重刊 되었다. 『神應經』 자체는 明의 저서이지만 동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流行本은 조선에서 간행된 『重刊神應經』이다. 조선 침구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서적 가운데 하나이다. 『鍼灸經驗方』은 조선을 대표하는 침구전문서로서 許任이 저술하였다. 인조 22년(1644) 간행되었다.

양자 모두 鬼邪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먼저 間使

를 취한 뒤에 十三穴에 침을 놓는 방법을 언급하고 있다. 『神應經』이 鬼邪의 치법으로 설명을 끝내고 있는데 반하여 『鍼灸經驗方』에서는 『神應經』의 내용을 癩癩門에 고스란히 인용하면서도 小兒門, 瘡疾門에 間使及十三穴의 응용법을 더욱 확장하여 신고 있다.

『承政院日記』의 기사와 『神應經』, 『鍼灸經驗方』 및 『鍼灸大成』(1601)의 설명을 비교하여 내용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承政院日記』의 치료기사는 『鍼灸大成』 보다는 『神應經』, 『鍼灸經驗方』의 방법과 기법적으로 일치한다. 『鍼灸大成』에서는 間使가 배제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도 ‘耳前髮際穴’을 頰車로, ‘太淵入半寸’을 大陵으로 사용하였다.

『承政院日記』 10월 3~9일 기사에도 大陵이 등장하지만 李馨益은 大陵으로 勞宮을 대신하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大陵과 勞宮이 함께 쓰이지 않았다는 점, 두 혈 모두 手厥陰心包經에 속한다는 점, 勞宮의 자침 순서에 大陵이 언급되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鍼灸大成』과는 달리 太淵과 大陵이 함께 쓰이고 있다는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정리하

면 Table 2와 같다.

### 3. 『鍼灸經驗方』에 나타난 燔鍼法

『鍼灸經驗方』 小兒門, 瘡疾門에 실려 있는 間使及十三穴 내용은 다른 의서뿐만 아니라 『鍼灸經驗方』이 間使及十三穴을 인용한 『神應經』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필자는 이 의문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들이 李馨益 燔鍼法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가설을 세우고 시대적 정황과 내용적인 근거를 통해 이를 확신할 수 있었다.

#### 1) 시대적인 정황

許任은 李馨益의 燔鍼法을 직접 목격한 목격자이다. 그는 비록 인조 11년(1633) 등용된 李馨益과 함께 활동하지는 못하였지만 퇴임 후에도 왕실의 건강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李馨益과 燔鍼法의 정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허임은 光海君 15年(1623)에 어의생활을 마감했다고 알려져 있지만<sup>5)</sup> 인조 6년 議藥하기위해 許任

**Table 2.** Comparison Between Lee-HyungYik(李馨益)'s Burnchim(燔鍼) and Thirteen-Acupoint(十三鬼穴) of Each Book

『承政院日記』 기사	『神應經』	『鍼灸經驗方』	『鍼灸大成』
間使及十三穴	鬼邪 [間使] 仍鍼後十三穴	鬼邪 [間使] 仍鍼後十三穴	百邪癩狂所爲病 鍼有十三穴須認 ...
人中	第一鬼宮 [人中]穴	一鬼宮 [人中]穴	一鍼鬼宮 [人中] 入三分.
手大指端	第二鬼信 [手大指爪甲下入三分]	二鬼信 [手大指爪甲下入肉三分]	二鍼鬼神 [少商] 入三分.
足大指端	第三鬼壘 [足大指爪甲下入肉二分]	三鬼壘 [足大指爪甲下入肉二分]	三鍼鬼壘 [隱白] 入二分.
太淵	第四鬼心 [太淵]穴入半寸	四鬼心 [太淵]穴入半寸	四鍼鬼心 [大陵] 入五分.
申脈	第五鬼路 [申脈穴]火鍼七錢二三下	五鬼路 [申脈] 火鍼七錢二三下	五鍼鬼路 [申脈](大鍼) 三分.
風府	第六鬼枕 [大椎上入髮際一寸]	六鬼枕 [大椎上入髮際一寸]	六鍼鬼枕 [風府] 入二分.
耳前	第七鬼床 [耳前髮際穴]	七鬼牀 [耳前髮際穴]	七鍼鬼床 [頰車] 入三分.
承漿	第八鬼市 [承漿]穴	八鬼市 [承漿]穴	八鍼鬼市 [承漿] 入三分.
勞宮	第九鬼營 [勞宮]穴	九鬼營 [勞宮]穴	九鍼鬼窟 [勞宮] 入二分.
上星	第十鬼堂 [上星]火鍼七錢	十鬼堂 [上星]穴火鍼七錢	十鍼鬼當 [上星] 入二分.
-	第十一鬼藏 [陰下縫]灸三壯	十一鬼藏 [陰下縫]灸三壯	十一鍼鬼藏 男即會陰 女即玉門頭 入三分.
曲池	第十二鬼臣 [曲池]火鍼	十二鬼臣 [曲池]火鍼	十二鍼鬼腿 [曲池](火鍼) 入五分.
-	第十三鬼封 [舌下一寸縫]	十三鬼封 [舌下一寸縫]	十三鍼鬼封 在舌下中縫 刺出血,

을 불러들인 기사<sup>9)</sup>가 보이며, 인조 17년에도 인조의 질병에 대해 가마를 보내 許任을 데려올 것을 논의<sup>13)</sup>하기도 한다. 그가 어의생활을 마감한 이후에도 왕과 왕실의 질병에 조인자로서 종종 관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鍼灸經驗方』이 초간된 것은 그보다 뒤인 인조 22년(1644)년의 일이다. 당시는 李馨益이 이미 궁중에서 상당한 입지를 굳히고 있었을 때였다.

따라서 당시 허임이 間使及十三穴에 대한 내용을 책에 실고자 하였다면 李馨益의 燔鍼法을 그냥 지나 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비록 그가 間使及十三穴에 대해 李馨益이나 燔鍼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엔 『承政院日記』의 燔鍼法 치료와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다. 이는 다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만약 『鍼灸經驗方』의 그것이 李馨益의 燔鍼法과 무관한 것이며, 許任 개인의 醫論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많은 의문점들이 생겨나게 된다. 許任은 무엇을 근거로 間使及十三穴에 대한 심도있는 언급을 하였는가?, 李馨益 이전에도 許任 같은 의가들이 이 방법을 알고 있었다면 왜 당시 사람들은 李馨益의 燔鍼法을 그토록 기이하다고 평가하였으며 李馨益의 등장 이전에는 燔鍼法에 대한 기사가 없는가? 또 仁祖

당대의 기록에서 李馨益의 부재시에 燔鍼法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어 시술할 수 없다는 기사가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등의 의문이 있게 된다.

논자의 생각으로는 李馨益의 燔鍼法은 문헌적인 용례는 있었지만 임상적으로는 매우 독특한 기법이었으며, 許任 또한 이를 인정하여 자신의 저술에 일부 적어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 2) 내용적인 일치

『鍼灸經驗方』을 살펴보면 ‘間使及十三穴’의 사용법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설명이 들어 있다. 間使及十三穴 자체는 『神應經』의 내용을 인용하였지만, 적용 병증이나 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설명들은 전대 문헌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내용들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독창적인 내용이 앞서 살펴본 치료기사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鍼灸經驗方』에 따르면 間使及十三穴은 鬼邪, 瘧疾, 원인을 알 수 없이 심해지는 怪疾 및 저주를 받아 생겨나는 질병에 사용된다. 許任은 鬼邪를 癩癩의 일종으로 보았는데, 정신적인 이상 상태가 특별한 원인이 없이 생겨날 경우 귀신에 의해 일어난다고 생각한 근대 이전의 사고방식에 기인한 것이다.

한편, 瘧疾은 심한 惡寒을 호소하였다가 다시 심

## ① 癩癩門

먼저 間使에 침을 찌르고 계속하여 뒤의 13개 혈에 침을 찌른다.

- 一. 鬼宮 : 人中穴
- 二. 鬼信 : 엄지손가락 손톱에서 살쪽으로 3分 들어간 곳.
- 三. 鬼壘 : 엄지발가락 발톱에서 살쪽으로 3分 들어간 곳.
- 四. 鬼心 : 大淵穴에서 半寸 들어간 곳

만약 사특한 벌레[邪蠱]로 인한 병이라면, 곧(벌레) 스스로(자신의) 유래를 말하는데, 가서 확인해 보면 실제로 그러하다.(벌레에게) 갈 것을 부탁하면 그렇게 해준다.

남자는 왼쪽부터 침을 놓고 여자는 오른쪽부터 침을 놓는다. 만약 몇몇 혈을 사용하고도 말을 하지 않으면 바로 아래에 배열된 혈을 쓴다.

- 五. 申脈 : 火鍼을 七鏗 쓴다.
- 六. 鬼枕 : 大椎위 髮際에서 一寸 들어간 곳
- 七. 鬼床 : 귀 앞쪽 髮際 부위
- 八. 鬼市 : 承漿穴
- 九. 鬼營 : 勞宮穴
- 十. 鬼堂 : 上星穴, 火鍼을 七鏗 쓴다.
- 十一. 鬼藏 : 陰部 아래 이음새 부위에 있다. 뜸을 세 장 쓴다.
- 十二. 鬼臣 : 曲池, 火鍼을 쓴다.
- 十三. 鬼封 : 혀 아래 一寸 되는 곳의 이음새 부위

한 發熱을 호소하는 증상을 통칭하는 병증으로 일견 鬼邪와는 상관없는 질환이다. 하지만 仁祖의 증상이운데 하나가 寒熱往來 였으며 瘧疾과 유사한 발열반

응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鍼灸經驗方』에 실려 있는 間使及十三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② 瘧疾門

제반 학질에 먼저 間使를 침 찌르고 鬼邪에 사용하는 十三等穴에 침을 찌르면 비록 火鍼을 사용하지 않고 다만 침만 찌러도 매번 신호한 효과가 있다.

③ 小兒門

怪疾. 몸에 병이 낮에 가벼웠다가 밤에 심해지면 치료하기 어렵다. 각각 그 경맥을 따라 병세가 점점 위중해지고 가슴도 또한 답답하고 아프며 (증상이) 괴이하게 변하여 예측되지 않는 것은 음양이 균형을 잃고 陰邪의 망동이 지극해 졌기 때문이다.

급히 『神應經』에서 鬼邪를 치료했던 방법을 사용한다.

먼저 間使에 침을 놓고 나서 十三穴에 침을 놓는다. 반드시 순서에 따라 침을 놓아야하며 만약 순서를 어기면 효과가 없다. 아울러 오른쪽에 있는 혈들에 침을 놓는다.

다음으로 근원이 되는 병[元病]이 주관하는 經脈의 要穴에 침을 놓는다.

병이 위중한 경우라 할지라도 침 10여회를 넘기지 않고 낫는다. 병이 가벼운 경우에는 침 4~5회를 넘기지 않고 낫는다.

또 陰下縫穴은 여러 번 침을 놓아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뒤에 사용한다.

또 申脈, 上星, 曲池에는 火鍼을 七鍼 사용하는데, 火鍼을 사용하지 않고 圓利鍼이나 三稜鍼으로 그 순서에 맞게 여러 번 시술하여도 매번 신기한 효험이 있다.

‘七鍼’은 뜸 7장과 같다는 설이 있다. 火鍼 또한 그 법에 의거한다면 살 속에 찔렀다가 피부 바깥으로 나오지 않게 하고 침끝을 조금 뽑아 다시 들이 미는 것을 ‘七數’에 의거하여 하는 것이 그것이다.

어른과 아이의 怪疾에 똑같이 이 방법으로 치료한다. 침을 사용함에 반드시 나이가 차고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하면 반드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저주로 인한 증상에 또한 반드시 鬼邪의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먼저 間使에 침을 놓고 十三穴에 불에 달군 침[火鍼]을 사용하는데, 한결같이 그 방법에 따라 행한다.

許任의 설명을 통해 間使及十三穴의 활용 방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병의 원인

- 사특한 벌레[邪蠱]로 인한 것
- 귀신에 홀린 것
- 저주로 인한 것

○ 주치 병증

- 주요 증상: 정신적인 이상상태 및 원인 불명의 發熱과 惡寒의 반복
- 참고 증상: 經脈을 따라 증상이 심화되며, 胸部의 煩悶과 疼痛이 동반될 수 있으며, 병증의 변화가 예측하기 힘들다.
- 난치 증상: 晝輕夜重의 양상을 띄면 치료하기 어렵다.

○ 치료 방법

- 먼저 間使에 침을 찌르고, 이어 13개의 俞穴을 차례로 찔러 나간다. 이 때 자침 순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 13개 俞穴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人中 ②少商 ③隱白 ④太淵穴入半寸 ⑤申脈 ⑥風府 ⑦耳門(耳門 혹은 聽宮) ⑧承漿 ⑨勞宮 ⑩上星 ⑪陰下縫 ⑫曲池 ⑬舌下一寸縫

- ⑪陰下縫은 일반적으로 생략하여 사용하기도 하며, 여러 번 치료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때에 비로소 사용한다.

- ⑤申脈, ⑩上星, ⑫曲池을 자침할 때에는 침을 불에 달구어[火鍼] 7번 提插한다. 火鍼이 어려운 경우에는 圓利鍼이나 三稜鍼으로 특별히 강한 자극을 주도록 한다.

○ 참고사항

- 가벼운 경우에는 4-5번, 심한 경우에는 10번의 시술을 기준으로 한다.
- 증상의 발현 양상에 따라 經絡辨證을 통해 해당 經脈의 要穴을 가감할 수 있다.
- ①人中 ②少商 ③隱白 ④太淵穴入半寸 네 俞穴 만으로도 증상의 호전이 있다면 나머지 俞穴들은 생략할 수 있다.

『鍼灸經驗方』에 언급된 間使及十三穴 운용법과 앞서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통해 알아본 李馨益의 燔鍼法은 유사한 점이 많다.

첫째, 우선 적응 증상이 서로 일치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仁祖는 귤내 저주사건으로 고통받고 있었으며<sup>7)</sup>, 그의 증상은 上氣, 脹滿, 寒熱往來 등이었다. 다른 의서들이 鬼邪로 인한 질병에 사용된다는 막연한 설명만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許任은 瘧疾의 寒熱往來, 怪疾의 胸部的 煩悶과 疼痛, 그리고 원인 불명의 질환을 間使及十三穴의 적응증으로 들고 있는데, 양자의 주치증은 개념상 완전히 같다. 특히 寒熱往來의 경우 燔鍼法과 『鍼灸經驗方』의 중요한 공통점이다.

둘째, 허임은 十三穴 운용에서 자침 순서가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承政院日記』 기사에서도 이 순서를 준수하고 있다. 기사의 俞穴의 나열 순서를 보면, 첫 번째로는 間使가 사용되었고 다음으로 十三穴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 十三穴의 순서는 許任이 언급한 자침 순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十三穴이 언급된 다른 의서에서는 일부 十三까지의 번호를 붙여 十三穴을 언급하고 있을 뿐, 시술 과정에서 이 순서를 지켜야만 한다고 따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鍼灸經驗方』이 유일하다.

이처럼 『鍼灸經驗方』에서만 홀로 언급하고 있는 설명들이 燔鍼法 기사에 나오는 특징들과 일치하고 있는 것은 『鍼灸經驗方』의 설명이 李馨益의 燔鍼法을 중심으로 쓰여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근거이다. 이 밖에도 몇몇 공통점들이 존재하는데, 다음 장에서 燔鍼法의 특징과 함께 부연하도록 하겠다.

『鍼灸經驗方』의 설명이 李馨益의 燔鍼法과 다른 점도 존재한다. 燔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火鍼七鎗이란 단어를 고수하고 있는 것, 火鍼의 대상을 ⑤申脈 ⑩上星 ⑫曲池 세 俞穴에만 국한 시키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이는 許任이 李馨益의 燔鍼法을 설명하면서도 『神應經』의 틀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許任이 그의 설명을 燔鍼法이라고 밝히지 않은 점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 李馨益 燔鍼法의 특징 고찰

지금까지 『承政院日記』에 나타난 燔鍼法의 치료 과정과 『鍼灸經驗方』에 묘사된 燔鍼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들을 통해 인조대 李馨益이 사용한 燔鍼法의 특징을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 지금까지 燔鍼은 수기법만을 가리킨다고 인식되어 왔으나 間使及十三穴이라는 특정 수혈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둘째, 燔鍼法에 사용된 間使及十三穴은 間使 및 人中, 手大指端, 足大指端, 太淵, 申脈, 風府, 耳前左右, 承漿, 勞宮, 上星, 曲池, 舌下, 會陰이며 이들은 순서를 지키면서 시술되었다.

셋째, 李馨益은 間使及十三穴 안에서 燔鍼을 하는 수혈과 하지 않는 수혈을 변화 시켰으며, 燔鍼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때문에 그는 되도록 많은 수혈에 燔鍼을 응용하였는데 인조 11년 기사에 보이는 것처럼 얼굴에 있는 俞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俞穴에 燔鍼을 사용하였다. 10월 10일 기사에서 仁祖가 중국의 사신 접견을 이유로 얼굴에 있는 上星에 燔鍼을 시술하기 곤란하다고 하자 燔鍼의 개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 손에 있는 太淵을 燔鍼 대상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sup>12)</sup>

하지만 이 부분에서 許任은 李馨益과는 다른 태도를 취한다. 그는 『神應經』을 토대로 申脈, 上星, 曲池에 火鍼을 七鎗 사용하라고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火鍼이 아니더라도 圓利鍼이나 三稜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許任이 火鍼에 얽매이지 않고 火鍼의 의미를 강한 자극의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넷째, 증상에 따라 俞穴을 변화하였다. 勞宮 대신 大陵을 사용한 것이 그것이다. 『承政院日記』 기사 전반에 걸쳐 承漿穴 자침 후에 勞宮이 아닌 大陵이 사용되었으며, 勞宮은 13일 기사에서만 확인된다. 또 陰下縫은 사용하지 않았다. 부위의 특성상 시술이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陰下縫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치료의 효과가 없을 때만 사용하라는 許任의 설명과도 일치점을 보인다. 앞서 살펴



본 인조 17년 기사에서 “間使及八穴”, “間使及九穴” 등의 언급들도 필요에 따라 몇몇 수혈들을 제외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섯째, 燔鍼法에 散鍼을 적절히 배합하여 사용하였다. 脹滿 치료를 위해 內庭을 사용한 경우이다.<sup>12)</sup> 이 또한 『鍼灸經驗方』에서 十三穴을 취혈한 뒤에 “다음으로 근원이 되는 병[元病]이 주관하는 經脈의 要穴에 침을 놓는다.”라고 설명과도 일치한다.

여섯째, ‘燔鍼’은 李馨益이 사용했던 火鍼 技法을 통칭하는 용어이며, 許任은 『神應經』의 기록을 존중하여 ‘火鍼七鉞’이라고 표현하였다. 許任은 火鍼七鉞에 대해 불에 달군 鍼을 俞穴에 재빠르게 찌르고 이를 7번 혹은 여러 번 提插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하였는데, 李馨益의 燔鍼術 역시 이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치한다고 말하기 힘든 것은 許任이 李馨益의 燔鍼을 토대로 『鍼灸經驗方』의 내용을 기술하였지만 許任은 『神應經』의 틀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承政院日記』 기사 가운데에서도 ‘火鉞’이라는 말이 보이는데<sup>14-17)</sup>, 이는 燔鍼의 치법을 묘사한 또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표현은 인조 27년에서야 비로소 발견되는데, 시기적으로 『鍼灸經驗方』 간행 이후라는 점도 우연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鍼灸經驗方』의 火鍼七鉞과 李馨益의 燔鍼術이 같은 것임을 뒷받침해 주는 좋은 증거이다.

### 결론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李馨益의 燔鍼의 계통은 기법에 있어서는 火鍼의 범주에 속하며, 문헌적으로는 『神應經』에서 間使及十三穴을 이용하여 鬼邪를 치료했던 방법을 계승한 것이다. 후에 許任은 『鍼灸經驗方』에 燔鍼 기술 방법을 자신의 견해에 따라 각색하여 기록하였다.

燔鍼의 성격은 특정한 수혈과 특정한 기법을 사용하여 특정한 적응증에 사용하였던 鍼法의 하나이다. 특정한 수혈이라 함은 번침이 사용되었던 間使

及十三穴을 말하는데, 이들 수혈에 순차적으로 번침이 사용되었다. 특정한 기법이라 함은 침을 불에 달구어 사용한다는 것 이외에, 번침을 사용할 수혈을 선택하는 것과 부수적인 증상 치료를 위해 일반 散鍼을 함께 사용하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특정한 적응증은 ‘정신적인 이상상태’ 및 ‘원인 불명의 發熱과 惡寒의 반복’으로 규정된다.

그간, 李馨益의 燔鍼은 기법적인 측면에서 燔鍼術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결론을 통해 李馨益의 燔鍼을 수혈, 기법, 적응증 모두를 포괄하는 ‘燔鍼法’으로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있었다.

『承政院日記』의 기사와 『鍼灸經驗方』의 의론이 燔鍼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새롭게 알려주고 있지만, 어떤 종류의 鍼을 사용할 것인가, 불로 손상된 피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아있다. ‘살을 지지는 고통’<sup>8)</sup>, ‘침자리에 놓이 잡힌 이후에 효과가 있다.’<sup>11)</sup> 등의 언급으로 보아 燔鍼은 시술 부위에 불로 인한 상처와 腫膿을 남기는 시술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관해서는 추후의 연구 결과를 기다려 본다.

### 참고문헌

1. Kim Hun. The Activities of Acupuncture Specialists during the mid-Chosun Dynasty and Lee Hyung Ik's BunChimSool (Burning Needle Technique).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5; 18(2):93-136.
2. Kim Hun. Examination of the Diseases of Chosun Dynasty's InJo.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5;18(2):15-38.
3. Kim IS. King Injo's Disease and Burnt Needle Therapy. Korean J Med Hist. 2004;13(2):198-218.
4. Kim IS. Homeopathic magic cases in the royal palace and its Political meaning in King Injo's reign. The Journal of Choson Dynasty History. 2004;31:79-111.
5. Park, Mun-Hyun. A Study of Huh-Im(許任)'s

- ChimGuKyungHumBang*(『鍼灸經驗方』). Dept. of Korean Medical History Graduate School. 2002:3.
6. Institute of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King In-Jo part(『仁祖實錄』).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Vol 28, 11 years January 17. Available from:<http://sillok.history.go.kr>
  7. Institute of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King In-Jo part(『仁祖實錄』).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Vol 28, 11 years January 22. Available from:<http://sillok.history.go.kr>
  8. Institute of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The Annals of the Choson Dynasty, King In-Jo part(『仁祖實錄』).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Vol 44, 21 years August 9. Available from:<http://sillok.history.go.kr>
  9. Royal Secretariat.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承政院日記』).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King In-Jo part. 6 years September 2. Available from:<http://sjw.history.go.kr>
  10. Royal Secretariat.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承政院日記』).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King In-Jo part. 10 years November 6. Available from:<http://sjw.history.go.kr>
  11. Royal Secretariat.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承政院日記』).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King In-Jo part. 11 years October 9. Available from:<http://sjw.history.go.kr>
  12. Royal Secretariat.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承政院日記』).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King In-Jo part. 11 years October 10. Available from:<http://sjw.history.go.kr>
  13. Royal Secretariat.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承政院日記』).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King In-Jo part. 17 years August 12. Available from:<http://sjw.history.go.kr>
  14. Royal Secretariat.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承政院日記』).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King In-Jo part. 27 years May 4. Available from:<http://sjw.history.go.kr>
  15. Royal Secretariat.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承政院日記』).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King In-Jo part. Enthronement years June 13. Available from:<http://sjw.history.go.kr>
  16. Royal Secretariat.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承政院日記』).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King In-Jo part. 4 years July 23. Available from:<http://sjw.history.go.kr>
  17. Royal Secretariat.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承政院日記』). National Institute of Korea History. King In-Jo part. 4 years July 26. Available from:<http://sjw.history.go.kr>